

미-이란 협상 임박 기대에 유가 하락 재개, 3대지수 상승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증시 낙관심리 우세 및 기술주 전반 강세

- 미 증시는 DOW +0.05%, S&P500 +0.58%, NASDAQ +0.91% 상승. 기술주, 헬스케어 강세, 산업재, 금융 약세
-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 +1.0% 상승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ETF(IGV) +2.8% 동반강세. 스노우플레이크(+36.5%)의 긍정적 가이드نس 및 AWS에 향후 5년간 60억 달러 규모 투자 소식에 업종 전반에 작용하던 AI disruption risk 완화
- 엔트로픽은 최근 투자 유치과정에서 기업가치 9,650억 달러(약 1,440조원)를 평가받으며 오픈 AI의 기업가치를 추월. 새 AI 모델 오피스 4.8을 공개, 사이버보안 위험을 고려해 공개를 미뤘었던 클라우드 미토스도 몇 주 이내 공개 예정이라고 밝힘

아시아 증시 압박한 유가, 영국 MOU 기대감에 다시 진정

- 약시오스는 미-이란 양국협상단이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이란 핵프로그램 추가협상을 위한 MOU에 합의, 트럼프 대통령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보도. 다만 이후 종전 MOU 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EIA에서 지난주 원유 재고가 -330만 배럴 6주 연속 감소세이나, 시장 전망 대비 감소폭이 적었던 점도 유가 약세 지지
- 앞서 미국의 이란 남부 드론공격 소식에 의해 국제유가 상승했으나, 상승분 반납 WTI \$88.9(+0.3%), Brent \$93.7(-0.6%)

컨센서스 부합 내지 하회했으나, 여전히 경계 대상인 인플레이

- 4월 PCE 가격지수 MoM +0.4% 전월·컨센 하회, YoY +3.8% 전월비 상승, 컨센 부합. 근원 PCE 가격지수 MoM +0.2% 전월·컨센 하회, YoY +3.3% 전월비 상승, 컨센 부합. MoM 기준 에너지 제품 가격 +5.5% 부담 지속. 한편 개인저축률 2.6%로 3%를 밑돌며 생활비 압박에 의한 소비여력 감소 가능성
- 1Q26 미국 실질 GDP 성장을 잠정치 +1.6%, 속보치 대비 -0.4%p 하향조정. 미 상무부는 민간 재고투자와 개인소비 둔화가 전체 성장률 하향에 반영되었다고 설명
- 카시카리, 무살렘 총재 등은 목표치를 넘어서 인플레이션 레벨에 경계감 표명, 높은 실질금리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 쿡 이사는 관세와 에너지 가격 충격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단기 충격이 장기 인플레이션으로 번질 가능성 경고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ARM	ARM	+10.8%	주요 IB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주가 강세. 미즈호증권은 투자 의견 '시장수익률 상회' 유지, 목표주가를 기존 \$290→\$360로 상향 조정. '27년까지 DRAM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고대역폭 메모리 총유효시장(TAM)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전망. 또한 '27년부터 본격화될 자체 CPU 생산 확대 및 주요 고객사들의 CPU 지속적 판매 강세에 주목
DELL	델	+3.8%	장 마감후 실적발표. 시간외 +39%대 상승중.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및 AI서버 매출 전망치 상향에 주가 급등. FY27 연간 매출 가이드نس를 기존 \$140B→\$167B(중간값)로 대폭 상향, 이 중 AI서버 매출 \$60B 제시. 또한 미 국방부와 \$9.7B 규모의 S.W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주가 견인
SNOW	스노우플레이크	+36.5%	실적발표.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및 연간 가이드نس 상향, 아마존웹서비스(AWS) \$6B 규모 투자 체결 소식에 주가 강세. 스노우플레이크측은 AWS에서 실행되는 AI 및 데이터 워크로드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 가속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힘. AI Disruption 우려 불식시키며, 오라클(+6.7%), 서비스나우(+6.5%) 등 소프트웨어주 동반 강세
LLY	일라이릴리	+4.1%	CVS 헬스(+1.0%)가 쥘바운드의 보험 적용을 재개하고, 새로 승인된 파운다요를 보장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 쥘바운드는 10월1일부터 CVS 케어마크의 상업용 처방집에 선호 의약품으로 복귀 예정. 파운다요는 6월 1일부터 보험 플랜을 통해 이용 가능해짐
BBY	베스트바이	+15.8%	실적발표. 어닝서프라이즈에 주가 강세. 애플의 맥북 네오 등 신제품 출시 및 세금 환급 증가에 기인. 동일일점포매출 성장률은 2.0%를 기록하며 컨센(0.9%) 및 자체 가이드نس(1.0%)를 대폭 상회. 한편 골드만삭스는 1분기 실적 호조에 목표주가 기존 \$59→\$62로 상향 조정했으나, 투자 의견은 '매도' 유지